

왕십리

2004년 3·4월호

내 · 마 · 음 · 의 · 풍 · 경



歸 家

어느 늦은 밤 귀가길.
지쳐 무거워진 나의 발걸음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옮겨지고
상처로 주저앉은 나의 영혼은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선다.

글 · 사진 / 차주영

목 차 / Contents

목회경영 / 인제의 계절 - 4

인터뷰 / 신동훈 담사 -5

기획기사 / 삼일도 생명을 해어만 하는가? -8

영성리더모듬 /
사회봉사위원의 활동, 도서관 개관, 원로추대 및 임직예배 -11

독자투고 1 / 의혹과 긴장을 살려낸 따뜻한 미소 -14
독자투고 2 / 아~ 이런 거구나 아버지 마음 -16

선교편지 / 새로운 선교지에서 -18

시 / 아침기도 -19

건강상식 /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올바른 구강 관리법 -20

가정예배 -21

해 · 음반소개, 논리아 놀자. -26

오리 / 오리엔트 스파게티 -27



살아있다는 것

모질던 겨울 바람이 어느새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바뀌었다.
얼었던 땅 속에서는 봄을 맞이하는 생명의 활동이 왕성할 것이다.
혹한의 겨울동안 앙상하던 나뭇가지와 형체도 남아 있지 않던 풀들이,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의 신비에 놀라울 뿐이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구나!
그러나 생명이 있어도 죽은 듯이 보이는 것보다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낀다.
생명이 있음보다 살아 있음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도 영생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살아 움직여보자.
우리의 믿음에 새싹도 튀우고 꽃도 피우자.
이 봄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에 힘찬 심장의 박동소리와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와
떠들썩한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의 꽃이 피고
새로운 가족이 새싹처럼 돌기를 기도한다.

김재영장로 / 출판위원장

인재(人才) 계절

오치용 목사

정이월 다가고 삼월이라네…….

노래하면 언제나 어느덧 진달래 가득했던 성북동 뒷산이 생각난다. 그리운 봄, 그 때의 계절. 어린 아이들이 되어 봄과 함께 새싹에 즐거이 놀라면서 정능 뒷산을 뛰어 다녔었지…….

그러나 이제는 꿈결 외에는 갈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듯…….

그러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어린 계절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절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을 맞고 있다. 하나님의 새싹들, 그 분의 인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뛰놀면서 마음껏 새 힘을 분출하게 하는 인재의 봄.

그 계절이 오고 있다. 지난 2월21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시간.

‘인재양성기금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의 감동과 설렘이 봄의 아지랑이같이 따스하게 내 심령과 앞길에 피어올랐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지문이 되고 있다.

교회와 민족의 인재를 키우자는 성도들의 호응의 합창으로 봄의 과문을 확산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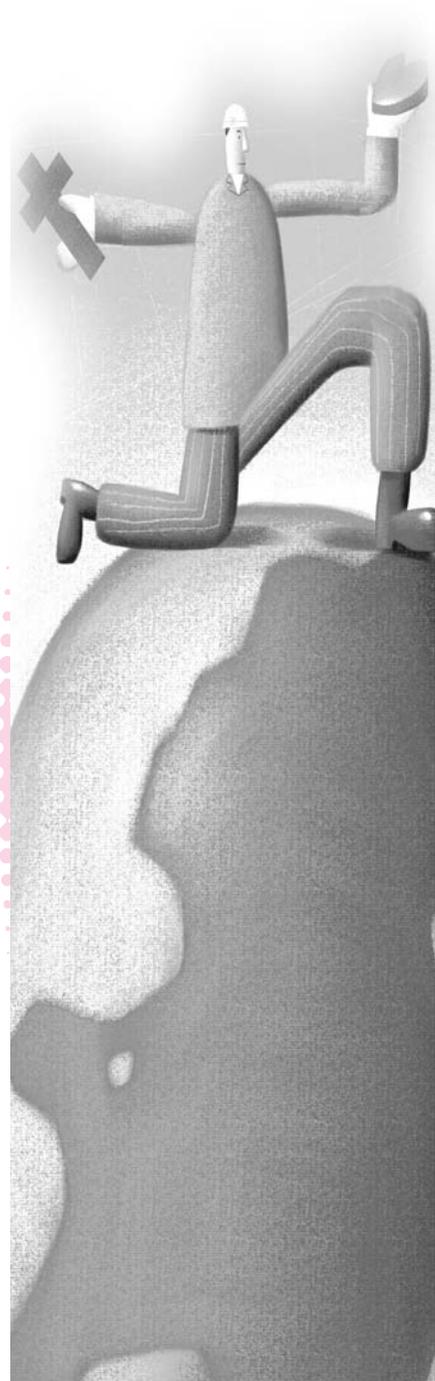
인재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하겠다. 사람을 정말 잘 키워보아야겠다. 지금 우리 교계와 사회, 민족의 앞날은 이제라도 인재양성의 힘을 얼마나 모으며 사람을 키우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를 키우는 큰 운동의 계절이 찾아오되 번갈아 가며 새 옷을 입어도 여전히 찾아드는 것 같이 꾸준하고 지속적이기를 기원하자.

그러고 보니 벌써 가슴이 설레인다. 인재가 모이겠구나…….

‘미래를 짊어질 그 인재들이 인재의 계절과 함께 솟아오르는 새싹같이 되겠구나.’ 라는 꿈 때문에. 아마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이 계절이 오기를 간구하련다. 주님, 인재의 계절로 새 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보니 나가 볼 시간이다. 저, 인재의 동산에 상징적인 식목을 하느라 단풍나무를 심던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고 보니 봄의 문에 가을도 기다리는구나. 풍성한 인재의 추수, 그 밭의 향기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봄.

봄, 인재의 계절들이여…….



신 동 훈 집사

interview

현재 LG상사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78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2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 광정숙 집사와 두 아들 문섭이와 경섭이 4 식구입니다.



Q 오랫동안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귀국하신 느낌?

A 1년에 한 번씩은 방문해서 특별한 건 없지만 교회가 변화하고 많이 발전되고 부흥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는 자체 교회 건물이 없이 힘들게 운영되는 곳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풍족하고 축복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긴장되고 화난 듯한 표정들, 긍정적이고 환한 표정보다는 전투적이고 굳은 표정들이 보여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편하게 인사하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어색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도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점점 그렇게 되겠지요.

Q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무역에 대한 전망이나 견해?

A 흔히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들이 머지않아서 중국에 추월당할 거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LCD / 반도체 / 조선 / 핸드폰 등의 중요 기술들이 2010년이면 중국이 따라잡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돈에 대한 일종의 숭배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어서 삶의 목표의 큰 부분을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도 많고 손재주는 우리와 비슷해서 싸게, 빨리, 많이 만들어내면 경쟁력이 커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노사관계의 어려움, 비싼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사업적 배경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로 사업장을 많이 이전하고 있고 특히 중국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기술이전이 되고 그만큼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연 7% 이상의 고성장으로 인해 모든 나라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협동적인 면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에 비해 위기 극복력이 매우 강해서 또 다른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계기로 노사문제의 해결이나 경제회복 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국민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Q 실업문 제, 특 히 청년 실업문 제에 대한 해결점?

A 우리나라 기업들 중 대기업들은 대체로 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하던 일을 기술향상으로 인해 60명이 일

교회안에서의 리더십은 술선 수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각자 섬기는 일에 술선수범하는 것.

을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서 인원을 감축하고 그 돈으로 회사 내·외에서 다른 투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기존 인원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기술향상에 따라 신규 인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력의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업이 특히 청년실업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들도 있고 기업구조적인 부분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주이건, 근로자이건 자신의 목소리들을 조금씩만 낮추고 서로의 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실업문제도 차츰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Q 사회에서, 교회에서의 리더십이란?

A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네요. 먼저 직장에서의 리더십을 말한다면 카리스마나 강요같은 상위하달식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하위상달식의 토론이나 의견교환 같은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죠. 회사에서 저는 개인에게 일을 줄 때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먼저 말하게 하고 스스로가 직접 고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유익이라 생각하고 책임과 신뢰를 갖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안에서의 리더십은 술선 수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각자 섬기는 일에 술선수범하는 것. 교회의 목적이 신앙의 성숙과 전도자로서의 삶이라면 술선수범 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교회에서의 리더십이라 생각 됩니다.

Q 현재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부서?



A 미국에서 지구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처음 지구촌교회를 갔을 때 새신자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집사와 함께 새신자부를 시작했죠. 미국에 있는 동안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해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온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교회와 무관심하게 보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왔는데도 무관심하게 보내버리면 얼마나 섭섭한지, 새로운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어서 새신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신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Q 청년시절의 꿈, 가치관?

A 꿈? 특별히 꿈이라기 보다는 항상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말자’ 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나 해석차이가 있었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관계했던

interview

아직 우리나라도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시선이 많은데
한번 전도로 끝나기 보다는 삶을 통해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어긋난 관계나 좋지 않게 끝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Q 노년의 계획?

A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서 살 것을 은근히 권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전 중소도시나 시골에 가서 살면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시선이 많은데 한번 전도로 끝나기 보다는 삶을 통해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Q 해외 지사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

A 유럽에서 8년, 미국에서 4년 정도 근무했는데 유럽은 문화적 유산이 많고 조금만 가면 다른 나라가 나와서 여행의 별미를 느낄 수 있고, 미국은 광활한 대지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정하는 것 보다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추천할 곳이 달라지겠네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가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무엇보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언어 실력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Q 책을 추천해 주세요

A 미국에 있을 때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청년이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 글은 총신대 김인환 구약학교수의 저서인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십일조 생활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일조를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용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십일조를 마치 구약의 잔재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고대 근동지방의 십일조와 이스라엘의 십일조

십일조는 바벨론, 애굽, 앗수르, 페르시아, 페니시아, 아랍, 헬라, 로마 등의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나 종교를 위한 일종의 세금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들

의 전리품이나 토지의 소산의 십일조를 그들의 신전이나 혹은 궁궐에 바쳤습니다. 페니시아인들은 서원의 형식으로 십일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가릿에서는 왕의 토지를 경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일종의 세금으로 왕궁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가축, 노예, 귀중한 쇠붙이와 전리품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헬라인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십일조를 드렸고, 로마인들 역시 그들의 소산이 모두 그들의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납니다. 맹자는 그의 저술에서 하·은·주나라

시대에 토지에 대한 조세법으로 십일조 법이 시행되었다고 기록하였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은 중국의 십일조 조세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시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법세계적으로 시행되었던 십일조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진 의무였으며, 자기 신들과 왕들에게 노여움을 달래거나 은총의 대가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십일조가 어느 민족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십일조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경에서의 십일조제도 (십일조의 성경적 기원)

성경에서 처음 십일조가 시작된 것은 창세기 14장으

십일조 제도는 이후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언약적 생활로부터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십일조 규범과 제도로 확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일조 제도가 가나안 땅에서 충실히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무엘상 8:15-17에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십일조를 바침으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사회 곧 이방인들의 십일조 제도를 이와 다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고유의 십일조 제도대로 실천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가장 부패한 시대의 극치인 시대에 아모스

흥미만 하는가?

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도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사실이 나타납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드린 십일조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십일조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전체와의 약속이었듯이 의무 역시도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선지자가 아모스 4:4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경외함과 목적을 잃은 십일조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말라기 3:8-13 역시도 여전히 십일조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의 생생한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께 돌아올 것, 즉 회개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된 강조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흥미롭게도 저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회개를 축하는 것을 배경으로 십일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십일조 제도

새언약 아래에서의 십일조

신약에서 십일조라는 말은 10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와 느헤미야 시대 이래로 줄곧 십일조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의해서 징수되고 분배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십일조의 징수를 위해 파견되었으며,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보내 강제로 십일조를 창고에 들이곤 했습니다.

물론 십일조의 의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었으나,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들은 십일조를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마 태복음 23:23을 보면, 신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상으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나타내 보인 위선적인 태도를 향해 책망하시고, 십일조가 단순히 의무의 성취가 아니라 십일조의 본질적인 정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들은 오경의 십일조 제도에 내재하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다른 동료 시민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고전 4:7; 뵤전 1:4). 십일조는 우리의 소득 중 하나님의 것이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전체 소득, 곧 하나님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십일조를 내시면서 아무런 감격이 없이 생각이 없이, 정확하게 금액을 맞추어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십일조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

각자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십일조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1) 구약의 율법인 십일조는 신약 시대에서는 지킬 의무가 없다.
- 2) 율법의 십일조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발적 십일조는 지켜야 한다.
- 3) 구약의 율법인 십일조 제도는 오늘날에도 지킬 의무가 있다.

십일조는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할 의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하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후 9:7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음주제

고대 근동의 역사와 성경과의
차이나 관계를 통해서
재미 있고 가벼운 이야기들 몇 가지

사회봉사위원회 활동

▶▶▶ 베데스다 아동 요양원 방문

강화에 있는 베데스다 아동 요양원은 아동정신 지체장애자인 1세 ~ 12세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1월 31일에 이 곳을 본 교회 중등부 학생 18명과, 지원하고 있는 모자가정 가족과, 사회봉사위원 도합 31명이 방문하여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다. 오히려 방문한 중등부 학생들과 모자 가정 모두 위로와 감사,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었다.

▶▶▶ 무료급식

2월 3일 나그네 이웃과 정신지체장애우 (임마누엘집, 우성원)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료급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회봉사위원회 헌신예배

2월 22일 사회봉사위원회의 헌신예배를 드렸다. 임마누엘집 원장 김경식 목사의 설교와 찬양팀의 특송, 본 왕십리교회의 60여명의 봉사위원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가졌다.

▶▶▶ 정신지체장애자 합동 생일잔치

2월 26일 가락동 가야부페에서 임마누엘집이 주관하는 합동 생일잔치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후원 및 살림 중창단과 한우리 하프단이 특송을 하고 오치용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왕십리도서관개관



당회원들과 도서관 봉사자들과

“앞으로 책읽는 왕십리교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이장수장로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도서관봉사자들의 인사



도서관 개관예배에서 설교하시는 오치용 담임목사



책들을 둘러보는 교인들

가지런한 잡지들...



책들을 둘러보는 교인들



평일에는 독서실로 운영
“전교일등의 산실”



미래주역인 자녀와 책을 보는 교인

은퇴 · 원로추대 및 임직예배



섬김과 봉사로 묵묵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이 되시도록.....



'주여 이들의 귀한 수교와 땀이 교회를 풍성케하는데에
쓰여지도록 하옵소서'



원로추대가 되신 원로집사님들의 기도



'진실한 믿음과 성실로써 섬기겠습니다'-임직자 선서



원로추대 · 임직예배에서.....



원로추대자와 임직자일동의 기념촬영

의혹과 긴장을 날려버린 따뜻한 미소

제 이름은 피향란입니다.

올해 30세이며, 두 딸의 엄마입니다.

외모로나 마음로나 어디를 보아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지요.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겪어왔던 경험일 것입니다.

비록 서른 살 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지나온 길들은 산전수전을 겪어온 노인과도 같습니다.



8년 전, 저는 홀몸으로 바다를 건너 제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으로 왔습니다. 낯선 이곳에 도착해서 낯설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저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모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각박한 인정이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일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남편이 만들어 준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제 일생의 유일한 남자인 남편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저의 일생이 이처럼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지나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저의 이런 아름다운 꿈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저는 남편이 남겨놓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일들을 홀로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몇 년 동안의 안일한 생활 속에서 세상을 헤쳐나갈 제 자신의 두 날개가 부러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바깥의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대면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망연자실하며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에 가까운 공포로 인해 저는 여러 번 그냥 죽고 싶었지만, 집에서 울고 있는 어린 딸들 때문에 이런 생각은 떨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깰 때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의지 할 곳이 없는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또 나쁜 일도 결코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건지, 저는 하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이 제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차 집사라는 분이 하신 것이었는데, 그 분은 저에게 4월의 어느 주 일날 교회에 와서 구호금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비록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교회당을 지나갈 때는 늘 뜻없이 무심히 지나쳤는데, 지금 교회당 밖에서 그 높고 웅장한 자태를 보니, 마음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머뭇거리지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아득하기도 하고, 또 한 줄기의 무언지 모를 기쁨과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를 맞아주시는 서 집사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만면에 가득한 따뜻한 미소가 마치 봄바람같이, 제 속에 있던 모든 의혹과 긴장을 다 날아가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게 되었습니다. 서 집사님을 통해, 저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정처없던 영혼이 마치 의지할 곳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야 모든 죄를 씻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더 이상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평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인 피향란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 주소서.

저는 3월에 학부모가 됩니다.

많은 걱정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 주여!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현명한 엄마가 되도록 도와 주소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땐

아이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이에게 지나친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제가 용감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

한 아이의 탄생을 위해 쏟아 부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입술들과 안타까움, 안쓰러움,
기대함, 사모함과 격한 감동의 시간들.....

이 모든 감정의 기복과 순간순간의 긴장감들을 홀로 마음속에 품으시고

“언제 이 녀석이 크나?” 하시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쓰다듬으시고,
토닥여 주시고 계시는 그 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맛 보았기 때문인가 보다.



“뽕치시네!!!”

“하! 하! 하! 그런 사진은 또 어디서 구했냐?”

검은색 그림에 하얀 점 하나가 있는 사진을 수줍은 듯 내어 놓는 아내에 대한 나의 첫 반응이었다.

2세 계획은 아직도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아내의 그런 말이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렸었나 보다. 허허허.

신기하기만 하다.

몸무게 3.36kg, 키 50cm의 이 아이가 그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니.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눈에서는 어딘지 낮설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고, 불이며, 코며, 속눈썹 하나 하나에까지 아이의 얼굴 한 곳 한 곳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기만 하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생후 30일.

아이의 얼굴 한 점 한 점에서 그 신기함을 찾아내던 시간부터, 아내의 품에 안기어 젖을 빨아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밤에 잠자다 말고 깨어서 보려는 아이에게 힘겹게 젖을 물리는 아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알아가는 것, 자는 아이의 옆에 가만히 누워 아이의 숨소리에 나의 숨소리를 맞춰보는 일들 하나하나가 즐겁고 신기하기만 하다.



“이 녀석이 언제 크냐?”

요즘 아내와 나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는 단어인 것 같다.

배에 있을 때는 언제 세상에 나올까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성장되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데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쏟고 있는가 보다.

요즘 나는 아가의 얼굴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

아가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눈길에서 하늘 아버지의 눈길을 느끼기 때문인가 보다.

아~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

책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접했던 용어인데.

청년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할 때면 항상 구하였던 제목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었는데.

아이의 출산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일까.

며칠간 눈가에서 떠나지 않는 눈물을 감추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일찍 떠나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수고해 준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서였을까.

출생의 순간까지 아이의 건강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긴장을 한 탓인지 무사히 그 첫 숨을 토해준 아이가 너무나 대견해서 그랬는지도 모르

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아버렸다.

그보다도 더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내게 감동을 주었던 것들은 바로 그 분의 마음을 살짝이나마 나의 마음속 깊은 그 어느 곳에선가 대신하여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주체할 수 없었던 눈물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나 보다.

한 아이의 탄생을 위해 쏟아 부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입술들과 안타까움, 안쓰러움, 기대함, 사모함과 격한 감동의 시간들, 이 모든 감정의 기복과 순간순간의 긴장감들을 홀로 마음속에 품으시고 “언제 이 녀석이 크냐?”하시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쓰다듬으시고, 토닥여 주시고 계시는 그 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인가 보다.

그 분이 나의 아버지여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 분의 자녀가 된 것은 내겐 너무 큰 축복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조금이나마 흘려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린다.

새로운선교지에서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의 선교게시판의 선교사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굼즈로 가는 길은 지루한 건기의 뜨거운 태양으로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엉성하게 늘어선 초목들은 차가 지날 때마다 일어나는 먼지를 자욱이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마주 오는 차를 만날 때마다 먼지를 먹지 않기 위해 창문을 급히 닫고 그것도 부족해 숨을 한동안 멈추어야 합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트럭이라도 지나칠라하면 혹시 마주 오는 차가 없을까 염려하며 숨가쁘게 황토 안개를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웅덩이와 큰 돌들을 피하다 보면 긴장해서 그런지 어느새 온 몸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 짓기 시작한 선교 기지로 향하는 길로 꺾어져 들어서자마자 그래도 지금까지 왔던 길이 좋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대강 담은 길은 사륜 구동 차이어야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라 느낌보 걸음으로 차를 몰아야 합니다. 언덕 옆으로 나있는 길을 타노라면 언덕 아래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차의 균형을 잡는다고 몸은 어느새 언덕 쪽으로 한층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을 앞길을 지나노라면 우기 때 소들의 발길로 바닥이 파헤쳐져 있어 그 길을 지나노라면 온 몸이 흔들립니다. 발에 낸 길들은 미처 돌로 다지기 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진흙으로 변해, 비 그치고 사나흘 동안은 차로는 빠져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넓은 언덕 위에 임시 거처로 지어 놓은 초가 두 채와 건축 자재들을 보관할 큰 텐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곳이 선교 기지였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오후 뜨거운 태양에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흑한에 숨도 쉬기도 힘듭니다. 거의 모든 샘들이 말랐고, 그나마 물이 나오는 샘도 물바가지를 뜨려면 한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물을 찾은 가축들의 오물과 여러 이물질로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 물을 떠서 병에 담아 보면 아주 작은 벌레들이 물속에 둥둥 떠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갓사스산으로 도적들과 범죄자들이 은신처로 삼고 있고 또한 굼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길도 험하고, 폭염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직 집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쥐도 많고 큰 구렁이를 비롯한 뱀과 그리고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톱툰이 와서 기초 작업을 행한 동료 선교사 존 콜만이 얼마 후면 안식년을 떠나게 되어, 기지 세우는 작업을 이제는 내가 맡아서 해야만 합니다. 집이 지어지면 우리 가족이 첫 번째로 이곳에 이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장소를 선택한 존이 원망스럽고, 존의 결정을 지지한 SIM에 대해 절로 심한 욕이 나왔습니다.

물이 없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을 씻지도 못하고 텐트에 누었습니다. 조은이는 신이 났는지 조잘조잘 떠들고 있지만, 아내는 말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밤 늦도록 원망과 극심한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낮에 본 모습들이 환영처럼 어른거립니다. 총을 든 굼즈 남자와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굼즈 여인네들, 흙투성이의 까만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모습.

결국 선교사는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

아침 기도

김 남 조

목마른 긴 밭과
미명의 새벽길을 지나며
씩이 트는 씨앗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이 눈물 흐르게 하듯이
생명들도 그러하기에
일일이 인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주실
허락이 남았다면
주님께 한 여자가 헤드렸듯이
눈물과 향유와 미끈거리는 검은 모발로써
저도 한 사람의 발을
말없이 오래오래
닦아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드립니다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올바른 구강 관리법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두번째로 아픈 것이 치통이라고 합니다. 세번째인 산통보다도 아픈 것이라고 하니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에 들어갈 법 합니다. 건강한 치아는 우리가 병없이 오래사는 것에도 꼭 필요합니다. '밥심'의 시작이니까요.

치아관리의 중심이 칫솔질입니다.

먼저 식후에 치실을 사용해 치솔질을 시작합니다. 치실로 치아 사이에 끼인 큰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치실을 양 손에 감아 치아 사이로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이 치실은 보철물로 연결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치아 사이에 사용하세요.

두번째는 '사이칫솔' 또는 '치간칫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칫솔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아 사이의 조그마한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니에는 사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치아 사이에만 사용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반적인 칫솔질입니다. 닦는 곳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곳입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서 위쪽으로 닦아주시고 씹는 면은 칫솔모가 씹는 면의 오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서 닦으셔야 합니다. 옆으로 치아를 닦으시면 치아가 패일 수 있습니다.

치통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귀찮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건강한 노년의 먹는 즐거움은 그분들 묶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염려하지 말라

마6:25~34

찬송: 50장 71장

성경 말씀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 생략

❁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걱정과 근심을 이길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와 삶은 무엇입니까?.

❁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 마무리 기도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염려로 주저앉아 고통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만큼 염려할 일도 많아진 것입니다. 입시의 염려 생활고의 염려 자녀의 염려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우리의 염려는 늘어만 갑니다. 그러므로 이시대는 내과 외과의 치료보다 신경정신과의 치료가 더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염려의 특성과 해결 방안을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1.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인에 대한 열등감을 보시고 유대인의 지혜문학서를 인용하여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문학서에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처럼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2. 염려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염려는 내세의 소망도 영생의 소망도 내일의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염려는 설치 동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질식해 죽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3.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26절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야 당연히 먹이신다는 것을 확신해야하며, 두번째는 33절에서 삶의 우선 순위를 확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므로 인생을 가불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만족하게 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전달되는 사랑”

요 11:28~37 찬송: 213장 234장



1. 배경설명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32절). 마리아는 ‘발 앞의 여인’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들을 경청하였고(눅 10:39),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발에 기름을 부었으며(요 12:3),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였기 때문입니다.

2. 나사로에 대한 사랑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극한 슬픔을 드러내었습니다.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 슬픔에 너무나 깊이 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비통에 감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으로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부활이며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에 묻혀 미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3. 슬픔의 감정과 고뇌를 겪으시는 하나님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과는 고립된 냉담하고 동정없는 분으로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고뇌를 함께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참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또 친히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인간은 그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연약함이란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여 주셨다면 인간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 11: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하니
- 11: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 11: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 생략

*대화하기

-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해서서 마리아를 부르신 곳은 어디며, 어디에서 마르다를 기다리고 계셨나요?(30절)
 2.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33절)
 3. 당신은 슬픔과 고뇌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마무리 기도

주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3월3주 요 9:13-25

찬송: 231장 214장

성경말씀

- 9:13 저희가 전에 소경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9: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9: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 생략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왜 바리새인들의 쟁론거리가 되었습니까?(14, 16절)
2.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한 진술을 소경의 부모가 회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2절)
3.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전통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제목 나누기: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미무리기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소경이 보게 된 사건은 유대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날을 택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눈 먼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 안식의 회복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전통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16절). 바리새인들 중에 더러는 죄인이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쟁론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모세가 표적과 기적으로 자신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증거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경도 예수님을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와 같다고 했습니다(17절). 그것은 소경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회피한 그의 부모와는 달리 소경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아는 바를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소경은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준 것 이외에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25절).

2. 종교의 개혁자

종교적인 과묵으로서의 출교는 여러 세대의 교회가 악의에 찬 모습으로 종교적 폭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직권을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희망없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구원과 안식을 주려 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으나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종교와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잘못된 종교의 위대한 개혁을 위함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

요 5:1-9

찬송: 265장 270장

성경 말씀

- 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시니라
-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 5: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 발이 험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 5: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 생략

주님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난치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 절망의 끝

그곳에서 주님은 삼십팔 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의 절망과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6절)라고 물으심으로 절망적인 병자에게 치유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 병자는 낫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걸어서 못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과 실패와 안타까움을 털어 놓습니다(7절). 그는 누워서 38년을 지낸 자로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출발’이란 말처럼 기적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전능자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할 때 가까이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한,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 다시 일어나는 법

삼십팔 년 된 병자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서는 그의 의지하는 눈빛을 들여다보시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8절).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능력에 사로잡힌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어둠 속에 방치해 둘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제도에 매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암울한 유대 종교의 난치병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일이 어떠한지 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언제입니까?(1절)
2.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는 언제입니까?(9절)
3.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절)는 주님의 명령이 당신에게도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날 받으소서.



저 자 : 강준민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가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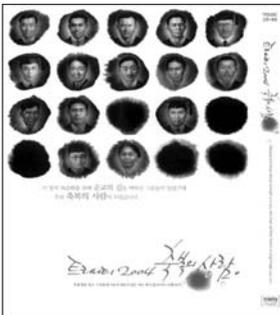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기적은 모두 문제를 통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지만, 예수님께는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시는 지를 배우십시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배우십시오.” -서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봉을 하거나 경계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2004년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이후에 전하는 두 번째 책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겼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수 : 고희원의

트리니티 2004 축복의 사람

트리니티 뮤직에서 여러가지 컴필레이션 음반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음반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택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땅에 열매가 맺혔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회생으로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에는 ‘부흥’의 고희원, ‘새벽이슬 같은’의 이 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의 설경옥, ‘야곱의 축복’의 김인식 등 우리

나라 CCM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곡가들이 함께 기도도 참여하여 음악적으로나 영적인 완성도면에서 꼭 채워진 음반입니다. 아울러 CD에 함께 수록된 뮤직비디오를 통해 귀를 통한 은혜 뿐만 아니라 눈을 통한 시각적인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두 형제가 들려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논리야 놀자

복면산에 올라...

대부분의 복면산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가장 낭만적인 복면산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彌山頂	미산(彌山)에 오르니
X 山山霞	산들은 안개 속에 숨었구나
登山快哉	산을 오르니 즐겁지 아니한가
望霞春快	안개를 바라보매 봄 또한 즐겁도다
望霞春快	안개를 바라보매 봄 또한 즐겁도다
望春春來快哉	바라던 봄이 오니 이 아니 즐거우랴

※ 복면산이란 ‘숫자’들이 복면(覆面 / mask)을 쓴 식을 말합니다. 복면산의 기본 가정은 같은 문자는 같은 숫자, 다른 문자는 서로 다른 숫자를 나타내며 첫 자리 숫자는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복면산은 일본의 퍼즐리스트 타미야 카츠야의 신년 카드 문구라고 합니다.

지난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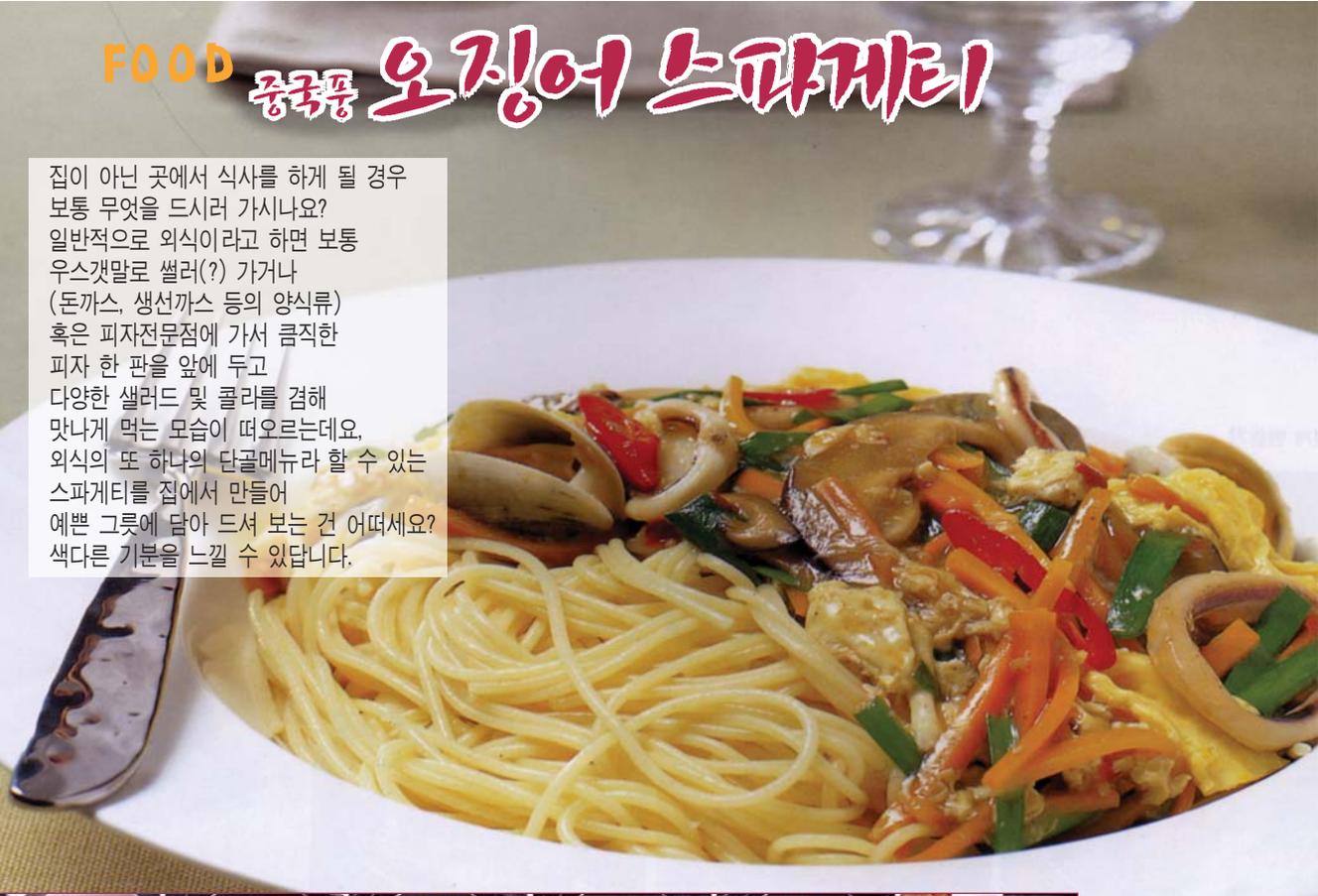
동전이 모두 n 개이고 앞면의 개수가 k 개 라면, 먼저 동전을 k 개와 $n-k$ 개의 두 뭉치로 나눕니다. 만약 k 개 쪽에 앞면이 a 개 있었다면, $n-k$ 개 쪽에는 $k-a$ 개의 앞면이 있습니다. 이제 k 개 쪽을 모두 뒤집으면, 양 쪽 모두 앞면이 $k-a$ 개가 됩니다.

지난호 정답자



FOOD 중국풍 오징어 스파게티

집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보통 무엇을 드시러 가시나요?
일반적으로 외식이라고 하면 보통 우스갯말로 썰러(?) 가거나 (돈까스, 생선까스 등의 양식류) 혹은 피자전문점에 가서 큼직한 피자 한 판을 앞에 두고 다양한 샐러드 및 콜라를 곁들여 맛나게 먹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외식의 또 하나의 단골메뉴라 할 수 있는 스파게티를 집에서 만들어 예쁜 그릇에 담아 드셔 보는 건 어떨까요?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스파게티는 끓는 물에 삶는다. 2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스를 볶는다. 3 달걀, 표고버섯을 넣어 볶은 후 오징어를 더해 볶는다. 4 모시조개를 넣어 볶는다. 5 소스를 넣고 국물이 졸면 부추를 넣는다. 6 달걀을 풀어 넣고 볶다가 녹말물을 풀어 볶은 다음 참기름을 넣는다.

• 필요한 재료

스파게티 160g(물 2.5l, 소금 약간), 오징어 ½마리(청주 1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모시조개 4개, 당근 ½개, 부추 30g, 불린 표고버섯 2장, 식용유 1큰술, 달걀 1개, 녹말물 1큰술(녹말:물=1:2), 참기름 적당량

소스 1 물 ¼컵, 쇠고기 조미료 ½작은술, 간장 ½큰술, 설탕 1작은술, 소금 ¼작은술

소스 2 마늘 1쪽, 두반장 1½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1. 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몸통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청주,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 한다.
2.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해감을 뺀다.
3. 표고버섯과 당근은 채 썰고 부추는 4cm길기로 썬다.
4. 스파게티는 끓는 물에 삶아 건진 후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 놓는다.
5.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스2를 볶다가 달걀, 표고버섯을 넣어 볶은 후 오징어를 더해 볶는다.
6. ⑤에 모시조개를 넣고 소스1을 넣어 국물이 졸면 부추를 넣는다.
7. 달걀을 풀어 ⑥에 넣고 볶다가 녹말물을 풀어 1분간 볶은 다음 참기름으로 향을 낸다.
8. 볶은 스파게티 위에 ⑦을 얹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0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오전 9시
 유년부·초등부 2부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년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1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http://www.wpc.or.kr ☎ 교회 : 2299-1011 출판실 : 2295-0114 FAX / 2292-0309

만든이들 / 간사 : 이승민 강도사 주간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집사, 배승원, 홍지혜, 이수정, 임현석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사진 : 차주영